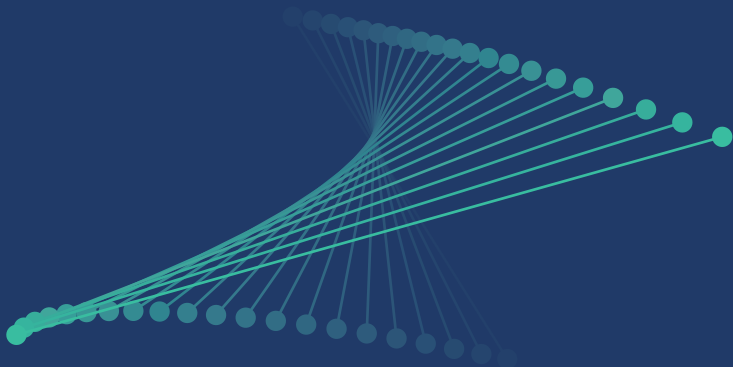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술 트렌드를 만나는 법

# 매일경제 CES 혁신 참관단 연수

Join Maekyung Media Group at CES  
and become a part of the future today!



## 주요 메리트

테크가이드 전시 해설

실리콘밸리 특파원 세미나

라스베이가스 현지 '매경 CES 포럼'

디브리핑 세미나 및 리포트 제공

**M** 매일미디어그룹  
MAEKYUNG MEDIA GROUP

# CES는 어떤 전시인가요?

## 새로운 혁신이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것

- 개리 샤피로 CTA회장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기술 산업 트렌드를 가장 빨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행사입니다.

축구장 26개 규모의 전시물  
3,200개 전시업체



대략 550여 개가 한국업체,  
이 중 50% 이상이 스타트업

50%

참여 국가 140여 개국,  
참석자 115,000여명

(2023년 기준,  
사전 감사 수치)



Fortune 500대 기업 중  
60%가 참가

60%

# 왜 CES에 가봐야 하나요?

## Chance

CES는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이 공개되는 혁신의 허브입니다. 연초에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Experience

수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CES!

CES에 참여하면 최신 기술과 혁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브랜드와 신생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Spectacular

CES는 전 세계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최신 제품, 그리고 혁신을 선보이기 위해 모인 행사이며, 기술로 가치 있는 연결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업계 리더, 기업가, 혁신가, 투자자 및 다양한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챙겨보세요.

**FACE-TO-FACE IS  
THE MOST POWERFUL  
SOCIAL NETWORK**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 ‘매경 CES 혁신 참관단’이 필요한 이유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은 CES전시장!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CES 키포인트 투어

전문 테크가이드가 함께 하는 ‘CES 키포인트 투어’로 방대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CES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전문 테크가이드가 행사장 부스를 함께 투어하며 핵심 기술과 트렌드 설명, 기술의 맥락과 배경·영향 해설,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통번역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의 리스크 매니징 분야에 있다보니, 세계적인 트렌드나 기업의 동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기회를 한국에서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CES에 참가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에 굉장히 놀라웠다. 큰 규모와 많은 인파 속에서도 기술가이드님의 활약으로 CES의 주요 기술을 꼼꼼하게 섭렵할 수 있었다.”

2019, A사 부대표

해외 연수를 간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며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요.

## 매경 CES 포럼

CES의 공식 미디어파트너 매일경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매경 CES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글로벌 기업인,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이 참석하여 통찰력 있는 강의와 차별화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경 CES 포럼을 통해 수없이 많은 시도와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CTA부사장,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기술에 대한 고민, 융합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 AWS부사장의 메시지 ‘Do not overanalyze it, just get going’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이들에게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다.”

- 2020, B사 대표

끝까지 남는 건 기록! 보고서 쓰는 데 더 이상 힘 빼지 마세요.

## 매일경제 리포트 제공

정보는 쉽게, 통찰은 깊게!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전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트렌드 파악은 기본이고, 취재진만의 특별한 CES시사점을 전달합니다. 행사 참관 전 사전 세미나와 행사 후 디브리핑 세미나도 참여 가능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미션이 있어서 출국하기 전부터 부담감이 컸지만, 전시장에서 테크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한 내용과 기자님의 인사이트가 담긴 CES리포트를 참고해서 보고를 잘 마쳤다. 매일경제 리포트가 정말 큰 도움이 됐다.”

- 2023, C사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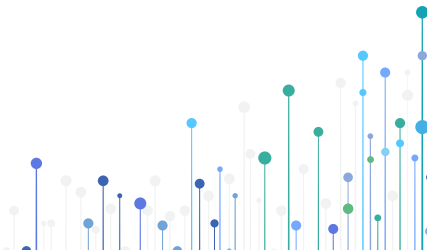
항공, 숙박, 현지에서 이동 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 매경 소속 CES 전문 운영진 동반

전시 참여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CES 전문 운영진이 다 알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매경 소속 CES운영진과 박람회 전문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여 비즈니스 항공권 확보는 물론 출발 전부터 귀국할 때까지 편안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경에서는 CES의 넓은 스펙트럼을 체계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재치 있게 준비했다. 사전 세미나로 CES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현장에서 테크가이드의 해설로 트렌드를 찾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일정 관리, 세심한 사전 준비와 안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신속한 답변과 응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었다.”

- 2023, D사 전무





## CES 참석,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CES 연수 준비를 위한 핵심 Check Point

#### Point 01

### 맞춤형 상담 원스톱 서비스

참여하는 기관, 기업, 개인별로 각기 다른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Point 02

### CES 전시해설 프로그램

CES의 주최사인 CTA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Floor Tour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전시 해설 프로그램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제공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의 시간, 비용, 투어를 인솔하는 테크 가이드의 역량이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Point 03

## 항공·호텔 확보 및 예약

연수에 필요한 항공 좌석 및 호텔 확보, 예약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CES 운영 노하우와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유연성을 가지는 일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CES 연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6개월 전(전년도 6월) 부터**는 ‘매경 CES 혁신 참관단 사무국’에 연락하여 1차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기간·회사별 계획에 맞게 연수 준비 타임라인 설계와 행사 준비 관련 정보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참관 신청안내 바로가기**

문의 T. 02-2000-5480, 5447

# 매경미디어그룹과 CES



## CES 공식 미디어

2017년부터 CES주최사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와 7년 연속 공식 미디어  
 파트너십 체결 (2023년 기준)



## 심층 보도

CES현장에서 살아있는 혁신 뉴스를 신문, 방송,  
 SNS를 통해 심층 보도



## 참관단 운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테크가이드가 함께  
 하는 ‘매경 CES혁신 참관단’ 운영



## 매경 CES 포럼

CES현장에서 공식적으로 CTA와 연계된 국내외  
 전문가와 실리콘밸리 경영자 등이 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 노하우 공유

매경 CES 혁신 참관단 사무국

전화 02-2000-5480, 02-2000-5447

사이트 [ces.mk.co.kr](http://ces.mk.co.kr)